

사 도 신 경

독립개신교회 교육위원회

- I. 1.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 II. 2.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 3.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 4.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 5.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 6.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 7.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 III. 8.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 9.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 10. 죄 사함과
 - 11. 육신의 부활과
 - 12.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번역 비교와 제안¹⁾

1.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em caeli et terrae;

Πιστεύω εἰς ΘΕΟΝ ΠΑΤΕΡΑ, παντοκράτορα, ποιητὴν οὐρανοῦ καὶ γῆς.

Ich glaube in Gott Vater, den Allmächtigen, Schöpfer Himmels und der Erden.

Ik geloof in God de Vader, de Almachtige, Schepper van de hemel en de aarde.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²⁾ of heaven and earth;

천주교: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성공회: 나 천지를 내신 전능 천주 성부를 믿으며;

개신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채운: 나는,³⁾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⁴⁾

고재수: 나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⁵⁾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해무: 전능하신⁶⁾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⁷⁾ 나는 믿습니다.

제안: 전능하신⁸⁾ 성부 하나님,⁹⁾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¹⁰⁾ 믿사오며,¹¹⁾

1) 라틴어와 그리스어와 영어의 textus receptus는 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reprint) p. 45; J. N. D. Kelly, *Early Christian Creeds* (New York: Longman, 1972) p.369에서 인용. 천주교와 성공회 및 개신교의 여러 번역은 나채운, 『주기도 사도신경 축도』 (장신대 출판부, 1988), 214-215에서 인용. 기타 인용한 책은, 고재수, 『교의신학의 이론과 실제』 (디다케, 1992); 유해무, 『개혁신학의학』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2) P. Schaff와 Ursinus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Maker로 번역되었다. 참고, 고재수 교수의 번역 및 주장.

3) 고백문의 주어를 맨 앞에 내세우면 1인칭적 신앙고백의 의미가 뚜렷이 드러난다. “내가”의 “가”는 단순한 주격 조사이기 때문에 절대적 주격 조사인 “는”을 써서 “나는”이라고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4) 사도신경은 고백하는 말이기 때문에 “믿사오며 --- 믿사옵나이다”는 문어체보다는 “믿습니다”는 구어체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5) 천지 창조를 “만드신”이라는 말로 표현한 성구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창세기 1:1을 언급하기 때문에 창조 사역의 신적 특징을 나타내는 “창조”라는 말이 더 낫다.

6) 6항의 “전능하신”과 통일을 기했다. 하나님의 전능은 6항에도 다시 나오면서, 사도신경 전체를 총괄하는 고백이 된다. 라틴어에서는 2항과 6항의 “전능하신”이 동일하게 형용사이니, 헬라어에서는 2항과 6항에서 각기 다른 명사가 사용되었다.

7) 명사의 동명사적 번역을 피하고 명사를 그대로 번역했다.

8) 하나님의 전능을 창조와 직접 연결하여 번역하는 것은 원문에도 충실치 못하고, - 특히 “전능자”로 표현한 희랍어 사도신경 -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데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창조의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사도신경에서는 일반적인 전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능이 문제인 것이다. 전능하다는 것은 공허한 개념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채워진 개념이다.” (로호만, 『사도신경해설』, 57쪽)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28문에서도 하나님의 전능을 창조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하여 설명한다.

9)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일차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번역하면 주기도문의 첫구절이 연상되고,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서의 아버지라는 의미는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 이 구절을 해설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성부”(엡 1:3; 롬 15:6 등)가 천지의 창조주임을 먼저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가르친다.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보다 더 딱딱한 면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더 풍부한 뜻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10) 라틴어와 헬라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신”을 대문자로 써서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잘 드러내었다. 이것을 살리려고, 각 문단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였고, 고백의 주체인 “나는”은 동사 앞에 두었다. 고백 대상을 고백 주체보다 앞에 두는 것이 사도신경과 같은 좀더 보편적인 신앙고백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contra 나채운, “(개신교 사도신경은) 고백의 객체인 하나님 아버지가 고백의 주체인 ‘나’보다 먼저 나타나므로, 제1인칭적인 신앙고백의 의미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결점이다” (『주기도 사도신경 축도』, 206쪽). 참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다. 그가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 중에서도 자기 계시 가운데서 친히 무엇을 하셨고, 하고 계시며, 하실 것인가가 중요하다.” (C.E.B. Cranfield, *The Apostles' Creed*, p. 8)

11) 나채운 교수의 말도 일리는 있으나, 요즈음의 젊은 사람에게는 “믿습니다”는 다소 책을 읽는 느낌을 준다. 따라서 다소 문어체의 색채가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격조가 있고 또한 운율도 잘 맞아 오랫동안 고백문으로 사용된 “믿사오며, 믿사오니, 믿사

2. Et in JESUM CHRISTUM, Filium eius unicum, dominum nostrum;

Kaì eis ἸΗΣΟΥΝ ΧΡΙΣΤΟΝ, υἱὸν αὐτοῦ τὸν μονογενή, τὸν κύριον ἡμῶν,

Und in Jesum Christum, seinen eingebornen Sohn, unsern Herrn;

En in Jezus Christus, zijn eniggeboren Zoon, onze Here;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천주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공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개신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나채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¹²⁾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재수: 그의¹³⁾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유해무: 나는¹⁴⁾ 그분의 독생자¹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¹⁶⁾

제안: 그의 독생자¹⁷⁾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¹⁸⁾ 믿사오니,

옵나이다”를 그대로 택했다.

- 12) μονογενής는 출생의 의미가 없고, 유일한 종류(γένος, 후손, 가족, 백성, 종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과 구별되는 선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이다. 독생자(the only begotten Son)라고 번역되려면 μονογένντος이어야 한다. 요한복음 3:16을 “독생자”라고 번역하기 시작한 것은 제롬이 신학적 해석을 그의 Vulgata에 집어넣은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unicus 대신 unigenitus를 사용). 대부분의 현대 번역들은 begotten을 삭제하고 one을 사용한다.

참고, 요한복음 3:16에 대한 영어 성경의 번역들.

1) KJV. “the only begotten Son”;

2) NIV. “his one and only Son”;

3) RSV, NRSV, NEB, REB, NAB, NJB, etc. “his only Son.”

- 13) “그”라는 지시 대명사보다는 “그의”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분명하다.

- 14) credo in을 살려서, 고백의 주체인 “나”를 삼위 하나님 앞에 반복시켜 원문에 좀더 충실하다.

- 15) 성부와 성자의 긴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로 “독생자”라는 말이 굳어졌기 때문에 성경 번역어(요 3:16)를 사용했다.

- 16)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중심으로 하여 문단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사도신경이 삼위에 대한 세례 문답에서 기원하였음을 고려할 때 반드시 세 문단으로 나누어야 하며, 따라서 두 번째 항목에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어야 한다.

- 17) (1) 신조학적인 고려.

μονογενής의 이해가 고대교회에서부터 논란이 된 듯하다. 니케아 신조(381년)에서는 사도신경의 제2항에 τὸν μονογενή 다음에 출생에 대한 구절이 첨가되는데(γεννηθέντα), 이것은 삼위일체 및 기독교론 논쟁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의 유일한(τὸν μονογενή) 아들은 성부와와의 출생 관계에서(γεννηθέντα) 설명되었다. 즉 유일한 아들은 곧 독생자이다.(Kaì eis ἓνα κύριον ἸΗΣΟΥΝ ΧΡΙΣΤΟΝ, τὸν υἱὸν τοῦ Θεοῦ τὸν μονογενή, τὸν ἐκ τοῦ πατρὸς γεννηθέντα πρὸ πάντων τῶν αἰώνων,)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채택된 신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부에게서 태어나신 유일한 아들” (ἸΗΣΟΥΝ ΧΡΙΣΤΟΝ, τὸν υἱὸν τοῦ Θεοῦ, γεννηθέντα ἐκ τοῦ πατρὸς μονογενή,) 라고 표현되었다.

여기에서 또한 주목하게 되는 것은 τὸν μονογενή가 사도신경의 라틴어에서는 unicum으로 표기되었는데, 니케아 신조에서는 unigenitum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Et in unum Dominum JESUM CHRISTUM, Filium Dei [unigenitum], natum ex Patre ante omnia saecula). 325년의 문서가 356-361년 경에 Hilarius Pictaviensis에 의해 라틴어로 번역될 때에도 μονογενή가 unigenitum으로 표기되었다 (JESUM CHRISTUM, Filium Dei, natum ex Patre unigenitum).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 판본 중에도 unicum 대신 unigenitum으로 표기된 것도 있다. 따라서 신조학적으로 살펴볼 때 μονογενής를 unigenitum의 의미로 이해하여 성부와와의 관계에서 “독생자”로 번역할 수 있겠다.

- (2) 성경의 번역에 대한 고려.

요한복음 1:14, 18; 3:16 등의 μονογενής를 “독생자”로 번역할 것인지 아니면 “유일한 아들”로 번역할 것인지는 신조학적인 고려와 다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조는 시대에 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므로,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번역어를 상당 부분 존중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말의 원뜻을 살려서 번역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요한복음에서 μονογενής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되었고, 따라서 바울 사도의 πρωτότοκος (롬 8:29; 골 1:15 등)와 비슷한 의미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참고, BAGD, p. 527), 그 말의 번역은 정확한 어원에 따라서 하는 것이 혼동을 줄인다고 생각된다. 성경의 번역에서 신학적인 고려나 교회사적인 고려가 제외될 수는 없겠지만, 일차적으로는 바른 어원에 따라서 번역을 하고, 그 말에 대한 신학적 교회사적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점에서 신학적 고려가 들어간 요한복음 3:16의 번역을 근

3. qui conceptus est de Spiritu Sancto, natus ex Maria virgine;

τὸν συλληφθέντα ἐκ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γεννηθέντα ἐκ Μαρίας τῆς παρθένου,

der empfangen ist von dem heiligen Geiste, geboren aus Maria der Jungfrau;

die ontvangen is van de Heilige Geest, geboren uit de maagd Maria;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from the Virgin Mary,

천주교: 성신으로 동정녀 마리아께¹⁹⁾ 잉태되어 나시고

성공회: 성신으로 인하여 강잉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으며;

개신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채운: 그는²⁰⁾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²¹⁾ 나시고,

고재수: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²²⁾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유해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제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4. passus sub Pontio Pilato, crucifixus, mortuus, et sepultus; descendit ad inferna;

παθόντα ἐπὶ Ποντίου Πιλάτου, σταυρωθέντα, θανόντα, καὶ ταφέντα, κατελθόντα εἰς τὰ κατώτατα,

gelitten unter Pontio Pilato, gekreuziget, gestorben und begraben; abgestiegen zu der Hölle;

die geleden heeft onder Pontius Pilatus, is gekruisigd, gestorven en begraven, neergedaald in de hel;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descended to hell,

천주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고성소(古聖所)에 내리시어

성공회: 본디오 빌라도 때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개신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나채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고재수: 본디오 빌라도에게²³⁾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²⁴⁾

거로, 즉 성경 번역을 근거로 “독생자”를 선호하는 유해무 교수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교회의 전통에 대한 존중도 있겠지만, 순환 논법의 아쉬움이 있다.)

여기에서 동시에 고려할 점은 γινωμαι가 “낳다”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γεννάω와 명백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롬 1:3 등. contra. 나채운).

(3) 사도신경의 번역 문제.

신조들은 대체로 성경의 가르침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시대적인 문제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원한 성경 말씀과 차이가 있다. 사도신경 역시 삼위일체와 기독교 논쟁의 흔적을 담고 있으므로, 신조학적인 고려를 우선하여 “독생자”로 번역할 수 있겠다. 특히 사도신경 1항에서의 아버지도 성자와의 관계에서 성부이고, 여기에서의 아들도 성부와 관계에서 고백되므로 (하이델베르그 33문) 독생자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독생자”의 번역어를 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요한복음 3:16의 번역의 영향을 받는다.)

18) 인도 유럽어에서는 “et, and” 등의 접속사로써 credo의 반복을 피하였다. 한국어 번역에서도 “나는 믿사오니”의 자리에 “나는” 대신 “또한”을 넣어 같은 말이 이어서 반복되는 것을 피하였다.

1897년 사도신경에는 “또한”이라는 말이 있으나 이후 빠졌다.

19) 천주교 번역의 경우, “마리아께”라고 함으로써 마리아의 사역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라틴어 원문은 de (by)와 ex (from)를 구분하여 동작의 주체는 성신이고, 마리아는 수단임을 잘 나타내었다. 헬라어에서는 동일하게 εκ를 사용하였다.

20) “이는”이라는 지시대명사보다는 “그는”이라는 인칭대명사가 더 적합하다.

21) “에게”를 현대의 어법에 맞게 “에게서”로 바꿨다.

22) 능동태에서는 마리아의 행동이 강조되지만, 사도신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수동태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수동태로 번역할 때 잉태 역시 구원 사역의 하나임이 잘 드러난다.

23) 원문은 “빌라도 아래에서”로 고난당하신 때를 지적하고, 동시에 빌라도의 책임을 내포한다. “빌라도에게”는 우선적으로 총독의 책임을 강조하고, 여기에 시기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문자적으로는 “아래에서”라고 번역되어야 하지만, “에게”라는 한국어 번역도 크게 그릇된 것은 아니다.

유해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²⁵⁾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²⁶⁾ 음부에 내려가셨으며,²⁷⁾

제안: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치하에서]²⁸⁾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리시고,²⁹⁾ 죽으시고, 장사되셨고,³⁰⁾ 음부에 내려가셨으며,³¹⁾

5. tertia die resurrexit a mortuis;

τῇ τρίτῃ ἡμέρᾳ ἀναστάντα ἀπὸ τῶν νεκρῶν,

am dritten Tage wieder auferstanden von den Todten;

op de derde dag opgestaan uit de doden;

on the third day rose again from the dead,

천주교: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공회: 음간(陰間)에 내리사,³²⁾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로 쫓아 다시 살으심을 믿으며;

개신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나채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고재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유해무: 사흘 만에 죽은 사람들로부터³³⁾ 부활하시고,

제안: 사흘날에³⁴⁾ 죽은 자들³⁵⁾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24) 장사되심은 고난의 한 단계인데, 한국 번역에서는 승귀 과정에 연결된다. 장사되심이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한국 번역에서는 시간의 문제로 바뀌었다. 또한 수동태가 능동태로 바뀌어 번역되었다.

25) 고난의 시기와 고난을 가한 책임 소재를 밝혀서 “치하”로 번역했다.

26) 잉태부터 장사되심까지는 피동태로 고백되고 음부로 가심부터 재림까지는 능동으로 고백되었는데, 태의 변화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27) 빠진 부분을 첨가했다.

28) “빌라도에게”라고 하면 빌라도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되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나 헤롯의 책임은 빠지게 된다. 요리문답 38문도 예수님께서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된 사실을 중요하게 설명한다. 빌라도를 세상의 군왕의 대표자로 내세우는 것이 사도들의 평가이기도 했다(행 4:27; 시 2:1-2). 따라서 sub 혹은 ἐπι의 일차적인 의미인 “시기”를 살리면서 그의 책임 - 고난에서 장사까지 - 을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일 것이다.

29) 나무에 달리 것 자체가 저주이므로(갈 3:13) 못박혔다는 말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 또한 못박혀 죽었다고 하여 십자가와 죽으심을 연결하는 것보다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연결하는 것이 원문(et, and)에 더 충실한 번역이 된다. 독일어, 화란어, 영어에서는 모두 죽으심과 장사하심을 한 개념으로 연결하여 번역했다.

30) 잉태부터 장사되심까지 수동태로 표현되었으므로 여기에서 한 번 끊는 것이 낫다 (참고. 유해무 교수의 번역). 또한 빌라도 치하에서의 고난은 구체적으로 그의 권한에서 이루어진 것, 즉 십자가와 죽음과 장사이므로, “고난을 받으사, --시고, --시고, 장사되셨고”라고 번역함으로써 이것을 한 단위로 번역했다. 라틴어 원문에서도 여기까지가 세미콜론으로 연결된다. 한 단위로 번역함으로써 과거형 어미의 반복을 피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7문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포괄적으로 가르친다.

31) 고재수 목사의 경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해설하지 않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택하고 있는 한국 장로교회는 “음부 강하”를 사도신경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표현을 택하는 것은 설명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번역을 그대로 취하자는 입장을 취한다. (교의 신학의 이론과 실제, 251쪽)

그러나 독립개신교회의 경우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주요 문서로 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개혁교회처럼 이것을 포함하여 번역하는 것이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학과 신앙을 이어받는 태도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다른 문제일 것이다. 이 구절을 제외시키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4문도 빠지게 된다.

한국어 사도신경에서 이 구절이 빠진 것은 역사적으로 더 살펴볼 부분이다. 나채운 교수의 책에 수록된 사도신경 역본들을 보면, 1894년과 1905년의 사도신경에는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고 - 더욱에 느리사(1894년), 음부에 느리셨더니(1905년) - 1897년과 1908년 번역에는 빠져있다. 1897년은 장로교 총회가 결성되기 이전이고, 1908년은 이후인데, 선교부나 총회의 결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찬송가 공회와 사적인 결정인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공회에서 이 부분을 번역하지 않은 이유도 다소 궁금하다.

32) 성공회의 宗徒信經에서는 이 구절을 5항에 포함시켰다.

33) 복수형을 살려서 번역했다.

34) 예수님의 부활은 정확히 72시간 만에 된 것이 아니므로 “사흘 만에”보다는 “사흘날”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6. ascendit ad caelos; sedet ad dexteram Dei Patris omnipotentis;

ἀνελθόντα εἰς τοὺς οὐρανοὺς, καθεζόμενον ἐν δεξιᾷ Θεοῦ πατρὸς παντοδυνάμου,
aufgefahren den Himmel; sitzt zu der Rechten Gottes, des allmächtigen Vaters;
opgevaaren naar de hemel, en zit aan de rechterhand van God, de almachtige Vader;
ascended to heaven, sits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천주교: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 편에 앉으시며,

성공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좌정하심을 믿으며;

개신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채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³⁶⁾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재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유해무: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³⁷⁾

제안: 하늘에 오르셨고,³⁸⁾ 전능하신 성부³⁹⁾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⁴⁰⁾

7. inde venturus est iudicare vivos et mortuos;

ἐκεῖθεν ἐρχόμενον κρίναι ζώντας καὶ νεκρούς.

von dannen Er kommen wird zu richten die Lebendigen und die Todten.

vandaar zal Hij komen om te oordelen de levenden en de doden.

(from) thence H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천주교: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공회: 저리로 좇아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줄을 믿나이다.

개신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채운: 거기로부터⁴¹⁾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고재수: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유해무: 그리로부터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⁴²⁾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제안: 거기에서부터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8. Credo in SPIRITUM SANCTUM;

35) “죽은 사람들”의 “사람”은 아직 친숙하지 않다. 者라는 말은 다소 고어체이기는 하지만, 교회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죽은 자들”이라는 번역어를 택했다.

살전 1:10,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36) 빠진 번역어를 살렸다. 1894, 1897, 1905년 사도신경에는 “아버지”가 나오지만, 1908년부터는 빠져서 찬송가에 인쇄되었다. 빠진 이유는 더 조사할 부분이다.

37) 하늘에 앉으신 것은 현재형이고, 그 이전은 과거형으로, 장차 오실 것은 미래형으로 고백되었는데, 한국어 번역에서 동사의 시제를 살림으로써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사역들을 좀더 생생하게 표현하려 하였다.

38) 승천과 오른편에 앉으신 것을 한 항목에서 고백하기 때문에 “오르사”로 번역해도 괜찮겠지만, 그렇게 번역할 경우에는 승천 자체의 의미는 삭감되고 경과적인 과정으로만 고백하게 된다. 요리문답 46-49문에서도 승천 자체의 의미를 길게 가르치기 때문에, 원문의 과거 시제를 살려 “오르셨고”로 번역하였다.

앞에서 묻히심, 다시 살아나심 대신 장사, 부활 등의 용어를 썼기 때문에 “승천하셨으며”로 번역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장사, 부활”과 달리 “승천”이라는 용어는 덜 익숙한 용어이기 때문에 “오르셨고”로 번역하였다.

39) 1항의 번역과 통일을 기하여 빠진 말을 보충하면서 “성부”로 번역하였다.

40) “계시는데”(유해무)는 다소 제한적인 의미가 있고 경과적인 어감을 준다. “계시며”라는 표현이 지금 통치하시는 주님의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41) “저기”라는 말에 “로서”라는 옛말을 사용함으로써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로서”라는 고어 대신 “부터”라는 조사를 써야 한다. (주기도 사도신경 축도, 204쪽)

42) 복수형을 살렸다.

Πιστεύω εἰς τὸ ΠΝΕΥΜΑ ΤΟ ἍΓΙΟΝ,

Ich glaube in den heiligen Geist;

Ik geloof in de Heilige Geest.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천주교: 성신을 믿으며,

성공회: 나 성신을 믿으며;

개신교: 성령을 믿사오며,

나채운: 나는 성신을 믿으며,

고재수: 성령을 믿사오며,

유해무: 나는⁴³⁾ 성령을 믿습니다.

제안: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9. sanctam ecclesiam catholicam; sanctorum communionem;

ἁγίαν καθολικὴν ἐκκλησίαν, ἁγίων κοινωνίαν,

eine heilige, allgemeine christliche⁴⁴⁾ Kirche; die Gemeinschaft der Heiligen;

Ik geloof⁴⁵⁾ een heilige, algemene, christelijke kerk, de gemeenschap der heiligen;

the holy Catholic Church,⁴⁶⁾ the communion of saints,

천주교: 거룩하고 공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通功)을 믿으며,

성공회: 거룩한 공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함을 믿으며;

개신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나채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고재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와,⁴⁷⁾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유해무: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⁴⁸⁾

제안: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⁴⁹⁾ 성도의 교제와⁵⁰⁾

10. remissionem peccatorum;

ἄφεσιν ἁμαρτιῶν,

Vergebung der Sünden;

vergeving van de zonden;

the remission of sins,

43) credo in을 살려서, 고백의 주체인 “나”를 삼위 하나님 앞에 반복시켜 원문에 좀더 충실하려고 하였다. 9-12항에서 “나는 --- 믿습니다”는 번역상의 첨부이다.

44) 독일어와 화란어에서는 “가톨릭”을 음역하지 않고 “보편적”이라고 번역을 한 후 “기독교적”라는 말을 교회 앞에 첨가했다.

45) Ik geloof in과 구별하면서, Ik geloof라는 말을 첨가했다.

46) Kelly의 책은 Catholic Church를 대문자로 표기했다.

47) 한국 번역에서는 가톨릭이라는 말을 피하기 위해 “보편적 교회”를 “공회”라고 번역하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교회”라는 중요한 말이 빠지게 되었다.

48) 명사를 동명사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원문대로 명사로 번역했다.

49) 나채운 교수와 유해무 교수가 채택한 “공교회”라는 용어는 천주교회의 옛 이름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또한 강조점이 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놓을 가능성도 있다. “보편적 교회”라는 용어가 자칫하면 사변적으로 오해될 수도 있으나, 성신과 말씀으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편적이라는 면을 강조하면 다른 번역어보다 더 낫다고 생각된다. 요리문답 54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보편적 교회를 가르친다.

50) “코이노니아”가 “교통”(고후 13:13)과 “사귄”(요일 1:3)이라는 말로 모두 번역되었다. 교통이라는 말은 요즈음 traffic이라는 뜻 이외에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 “독립개신교회 현장”에서 “성도의 사귄(communio sanctorum)”이라는 역어를 택했으므로 “사귄”으로 번역했다.

천주교: 죄의 사함과

성공회: 죄 사함을 믿으며;

개신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나채운: 죄를 사함 받는 것과,⁵¹⁾

고재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유해무: 사죄와⁵²⁾

제안: 죄 사함과⁵³⁾ [죄를 사하심과]

11. carnis resurrectionem;

σαρκὸς ἀνάστασιν,

Auferstehung des Fleisches,

opstanding van het vlees;

the resurrection of the flesh,⁵⁴⁾

천주교: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성공회: 육신이 다시 삶을 믿으며;

개신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나채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⁵⁵⁾

고재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유해무: 육의⁵⁶⁾ 부활과⁵⁷⁾

제안: 육신의⁵⁸⁾ 부활과

51) 我信罪得赦免이라는 중국어 사도신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사죄 행위가 아니라 신자가 받는 사죄를 나타낸다.

52) 명사를 동명사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원문대로 명사로 번역했다.

직역하면, “죄들의 용서”이나 복수를 살려서 번역하지 않았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한 성부의 사죄를 생각하게 되나, 여기에서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사죄’임을 구별하여 강조한다(개혁신학, 96쪽).

53) 유해무 교수의 지적처럼 동명사로 풀어서 번역하는 것은 피하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문서임을 고려하여 운율을 맞추기 위해 조금 긴 명사구로 번역하였다. (12항의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임.)

사도신경의 구조를 놓고 볼 때에는 유 교수의 주장처럼 성자 안에서의 성부의 사죄와 성신 안에서 신자들이 누리는 사죄의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나, 요리문답 56문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신자들이 받는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은 “죄 사함”일 것이다. 또한 유 교수의 제안처럼 “사죄”라고만 할 경우, 유 교수의 주장과 달리 “하나님의 사죄 행위”가 쉽게 생각된다. “죄 사함”의 경우는 좀더 우리가 받는 측면이 두드러지고, 다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의 용례도 많이 있다.

마 26: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막 1:4,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행 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신을 선물로 받으리니.”

54) “of the body.” Ursinus, *Commentary of the Heidelberg Catechism*, 23문; 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III, p. 314.

55) 개신교의 “다시 사는 것”은 부활보다는 “사는 것(to live)”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다음 구절의 “영원히 사는 것”과 함께 쓰여, “사는 것”의 두 측면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타나내는 말 - 살아나심 -을 쓰는 것이 타당함.

56) 헬라어와 라틴어의 원문을 살려서 “육”으로 번역했다.

57) 명사를 동명사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원문대로 명사로 번역했다.

58) 유해무 교수의 “육의 부활”은 다소 어색하다. 1894년 최초의 사도신경에서는 “육신”이라고 번역되었으나 1897년 사도신경부터는 “몸”으로 바뀌었다. 사도신경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가리키지만, 라틴어나 헬라어에서 “몸”보다 연합함과 덧없음을 더 잘 나타내는 “육신”이라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부활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더 생생하게 표현했다. (C.E.B. Cranfield, *The Apostles' Creed*, p. 67) 유 교수의 주장처럼 원문을 살려서 “육신”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낫다.

12. (et) vitam aeternam. Amen.

ζωὴν αἰώνιον. Ἀμήν.

und ein ewiges Leben.

en een eeuwig leven.

and eternal life. Amen.

천주교: 영원히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공회: 영원히 삶을 믿나이다. 아멘.

개신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나채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고재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유해무: 영생을⁵⁹⁾ 믿습니다. 아멘

제안: 영원한 생명을⁶⁰⁾ 믿사옵니다.⁶¹⁾ 아멘.

59) 명사를 동명사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원문대로 명사로 번역했다.

60) 문맥에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번역할 경우, 그 종말론적 생명이 현 역사에 들어온 사실도 포함하는 장점이 있다. 요리문답 58문도 지금부터 누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완성될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고 있다.

61) “나는”이라는 말은 삼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에만 붙임으로써 I believe in을 표현하려고 하였고, 이 경우에는 “나는”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음으로써 차별성을 두려고 하였다.